

함평군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집중 육성한다

일반 한우와 품질 차별화 위해 친자확인 등 심사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씩 총 12억 원 투입

함평군은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함평전지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함평전지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일반 한우와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친자확인 및 선발기준 등을 심사해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으뜸한우' 브랜드 명칭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관리한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비를 통해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등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하고 함평가축시

장 내 전자경매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업시행기관인 함평축협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전담인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종축개량, 전산D/B구축, 유전자 검사, 정액공급, 초음파진단기 확보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여농가에는 귀표 부착, 백신공급, 개체관리 현황판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 송아지보다 수십만 원 높게 낙찰될 정도로 브랜드 송아지의 우수한 품질과 시장 수요는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 한우산업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이번 함평전지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목포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8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가 2021년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야간 보행 및 방범 등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관내 20세대 이상 202개 공동주택 단지로 신청서류를 구비해 1월 18일까지 시 건축행정과로 제출하면 되며, 단지 내 보안등 전기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계량기가 설치된 보안등의 1월달 전기요금과 단지 내 보안등 수를 기준으로 아파트별 지원 단가를 확정하여 2월초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비 통장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입금받은 보조금을 단지 내 일정기간 동안의 보안등 전기료로 사용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11월까지 정산 후 반납하면 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영암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사업 운영자 모집

2가지 유형 운영...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영암군은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귀촌을 체험하는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가 올해부터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는 도농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며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2019년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큰 호응을

받은 사업이다.

주요 운영 방식으로는 농산어촌 체험과 귀농산어촌 기초 정보 습득, 지역주민과의 교류 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가공기술 등의 전문기술을 전수하여 창·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화형 등 2가지 유형이 있다.

영암군에는 지난 2년간(2019~2020년) 71명의 도시민들이 참여하였고, 그중 7명이 영암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으로, 영암과 농촌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해 관심과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활성화에 기여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금년도 운영자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15일까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산어촌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춘 농산어촌 체험마을 및 농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신안군, 국비 역점사업 2785억 확보

신안군은 지난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2021년도 국비 예산 2,7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국가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주요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

군관련 정부예산을 살펴보면, ▲압해-화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 298억 원 ▲신장-복룡 국도2호선 시설개량 137억 원 등 도로건설사업과, ▲가거도항 복구공사 206억 원 ▲홍도항 개발사업 111억 원 ▲흑산도항 개발사업 107억 원 등 항만 기능 강화사업 등이 대거 반영되었고, ▲신안경찰서 신축 21억 원 ▲목포서 자은파출소 신축 3천만 원 등 주민 치안 강화 사업과 ▲흑산도 소형공항건설 사업비도 69억 원 포함되었다.

특히,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신축(총사업비 100억 원)을 위한 설계 용역비 3억 원을 반영되어 군 핵심산업인 천일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 발족 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장 등 7명으로 구성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한빛원전 3·4호기 부설공사로 인한 현안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빛원전 현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협의회의 구성위원은 영광군의회 김병원 원전대책특별위원장, 임영민 군의원, 범군민대책위원회 박웅구·황대권 공동위원장,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이하영 부위원장, 영광군 홍석봉 부군수, 김효선 안전관리과장 등 7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원 군의원이 추대되었으며 협의회 설치 및 운영회칙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계획안이 의결되었다.

따라서 지난 2019년 영광군·영

광군의회·범대위와 총리실 등 정부기관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종료 이후 지연되어오던 한빛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등 부설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확인 등 후속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협의회가 규정한 현안사항은 ▲한빛원전 부설시공에 대한 대군민사과 및 명예회복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제3차 평가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돌 내부철관 검사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조사결과 후속조치 ▲국회차원의 부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부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한빛원전격납건물 관련 제도개선 등 7개 사항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무안군, '창(창), 그 시작과 새로움을 말한다' 학술 포럼 개최



무안군은 지난해 12월 28일 무안문화지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사)승달우리소리고보보존회와 2020 무안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유영대 교수(고려대학교 교수, 국립창극단장역임), 백두산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교

수), 안남일 교수(고려대학교 교수)가 주제를 발제하였고, 김희태(전라남도 문화지문위원), 이윤선(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유대용 교수(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창(창), 그 시작과 새로움을 말한다'를 주제로 창극의 역사적 전개와 우리시대의 창극, 강용환의 생애와 창극활동, 창극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무안읍 교촌리 출신인 강용환 명인은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장단스승이자 어전광대로 활동하였다. 그는 최초의 창작창극인 최병두타령을 비롯하여 춘향가와 심정가를 창작화 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통창극과 창작창극을 정립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강용환 명인의 생애와 창극 연출시기에 대한 학술적 고찰과 함께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창극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포럼은 무안의 숨겨진 명인과 명창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나온 연구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